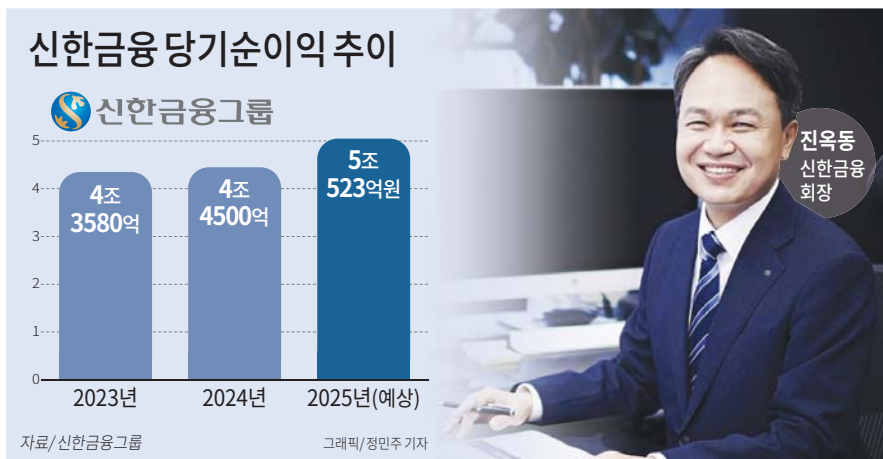


연임 탄력받는 진옥동… 관치 우려 속 신한금융 ‘승계 시험대’

신한금융 차기회장 인선 착수
진 회장, 실적 기반 연임 전망
비은행 성장·순이익 증가세
회추위, 12월 최종 후보 확정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 정부 들어 관치 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검증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회추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내외부 풀을 포함해 승계 후보군을 선정하고 있다.



곽수근 회추위 위원장은 “그룹 경영승계절차 개시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경영승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 진 회장 연임 여부 촉각

내부에서는 진옥동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순이익

은 2023년 4조3680억원에서 2024년 4조45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신한금융의 올해 순이익을 5조523억원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13.58% 증가하는 수준이다.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비은행의 수익기여도가 약 44%로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의 비

이자이익은 지난 2022년 2조2710억원으로 떨어진 뒤 2023년 3조4300억원, 2024년 3조272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2조2044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4.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589억원으로 전년(2072억원) 대비 25% 늘었다. 같은 기간 신한라이프의 순이익도 3129억원에서 3443억원으로 10.04%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회장은 취임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거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주주환원 확대의지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연임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회장 선임, 정부 의중 반영되나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관치 인사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정책과 금융 운용을 연계하려는 기조 속에서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정부

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정당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지분이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CEO 선임에 끼어든 명분이 없어서다.

신한금융은 회장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추위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한 상태다. 회추위 사무국은 최종 후보의 추천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위원회의 후보 심의 및 운영 지원,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을 전담한다.

신한금융 회추위는 오는 11월 말 압축 후보군(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초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회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는 적정성 심의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회장이 확정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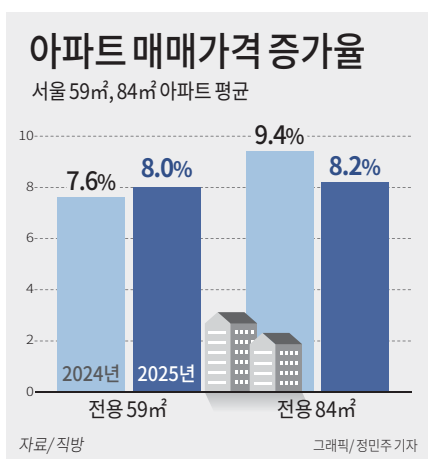
서울 24평 아파트 ‘10억 시대’… ‘국평’ 기준 바뀌나

전용 59㎡ 평균 매매가 10억5006만원
규제강화 속 중형평형 수요 지속 늘어

서울 아파트의 대표 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59㎡(약 24평)의 평균 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와 자금 부담 속에서도 중형 평형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약 8% 상승한 수치로, 3년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별로는 강남구(16.7%),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상



승세를 이끌었다.

강남구의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7억8706만원에서 올해 20억8570만원으로 3억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개포동은 20억5302만원에서 25억2137만원으로 22.8% 급등했고, 삼성동(17.9%), 역삼동(1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권 13개 동 중 5개 동의 전용 59㎡ 평균가격이 20억원을 넘겼다.

마포구는 용강동(13억9316만원→17억90만원)의 상승폭(22.1%)이 두드러졌으며 ‘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와 ‘마포용강삼성래미안’ 등 역세권 신축 단지의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는 잠실·신천동 중심으로 전용 59㎡ 평균가격이 13억1720만원에서 15억2588만원으로 2억원 이상 뛰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도봉구는 5억3974만원에서 5억4894만원으로 1.7% 상승하는데 그쳤고 중랑구는 5억8722만원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금천구는 6억913만원으로 1.8% 하락, 종로구도 11억3978만원으로 5.5% 낮아졌다. 두 지역 모두 역세권 신축보다는 저가 단지 중심의 거래가 많아 평균 가격이 낮게 집계됐다.

서울 전용 59㎡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원→2024년 9억7266만원(7.6%)→2025년 10억5006만원(8.0%)으로 매년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서 59㎡ 평면은 공간 효율성이 높고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3040 실수요층과 3인 가구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다.

한편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11억6597만원→2024년 12억7591만원→2025년 13억8086만원으로 올랐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둔화됐다. 이미 높은 가격대와 강화된 대출 규제, 그리고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84㎡는 여전히 가족 단위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평형이지만 가격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59㎡로 이동하는 실수요가 늘고 있다”며 “두 평형 모두 시장의 기준 역할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흐름은 실거주·환급성이 높은 중형 평면 중심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KB금융그룹

6조6545억 규모

사회적 가치 창출

KB금융그룹은 지난해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4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통해 총 6조654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13일 밝혔다.

KB금융은 매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비금융 부문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서 창출하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및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측정된 사회적 가치 규모는 항목별로는 ▲환경(E) 3134억원 ▲사회(S) 2조7122억원 ▲지배구조(G) 및 기타 3조6289억원으로 측정됐다.

특히 사회(S) 부문의 경우,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융우대, 소상공인 금융비용 완화 및 보증지원 출연 등 포용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의 성장을 이끌었고,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주환원 성과가 반영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E)과 사회(S) 부문의 주요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하고 성과 측정 예시를 알기 쉽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다양한 ESG 경영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의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는 KB금융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집값 35주 연속 상승세… 정부, 이번주 추가대책 발표

당정, 주택안정 근본대책 필요 공감
압구정 100억 이상 거래 등 과열 우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모니터링하며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연속 오르는 등 오름폭이 확대되자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

했으며 시장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방향이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마지막 주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오르며 3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78%), 마포구

(0.69%), 광진구(0.65%) 등 주요 지역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는 공덕·도화동, 광진구는 구의·광장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남권도 송파구(0.49%), 강동구(0.49%), 양천구(0.39%) 등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름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4억7500만원에 거래돼 두 달 전보다 1억75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59㎡도 9월 30억4000만원에 거래돼 전달보다 4000만원 올랐다.

압구정 일대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으로 초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압구정 아파트 중 100억원 이상에 거래된 건수는 계약 해지를 제외하고도 8건에 달해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대단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